

“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 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사야 52:7)

멀리서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동역자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과 사역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과 새해의 시작을 지나며, 이곳의 사역에 대한 감사와 부담, 그리고 다시 붙들게 된 소명을 함께 나눕니다.

SC 공동체 소식

지난 한해를 마무리하며 공동체 식구들은 바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병원이 오픈은 했지만 아직은 현지의 환자들이 찾아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것 같습니다. 하지만 각 선생님마다 공동체에서 맡은 바 소임을 인내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고 계시며 사교병원인 만큼 현지 의사및 간호사들과 좋은 관계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다가오는 3 월에는 개설을 앞두고 있으며 병원건물 1 층에 작은 약국과 안경점 개설과 직원 기숙사 건축에 대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참 어렵다는 것을 병원이 준비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절실히 느꼈던 만큼 오직 오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산 증인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공동체 가족들이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로청소년 7도사역 (루하마의 집)

요즘 우리의 자랑거리는 따오를 비롯한 따오형제의 신실한 믿음의 성장입니다. 3 년전 (귀)와 (오) 형제를 처음 만났을 때 귀는 B국어도 못하고 수줍음많은 어린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B국어도 저희 부부보다 훨씬 잘하고 성경암송도 잘합니다. 형인 따오가 일을 하고 돌아와 저녁마다 믿음으로 가족들을 모아서 스스로 성경을 같이 읽고 성경공부 할때도 제일 열심으로 손을 들어 답을 말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아름답고 신실하신지 그 모습을 교회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오직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루하마 집의 재정리 시간.... 구정을 전후하여 저희는 루하마집의 공간과 운영을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쉼 없이 아이들이 입소하고 떠나고 사용해 온 공간이었기에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정리가 필요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루하마의 집이 다시금 안전한 쉼터, 회복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루하마의 집은 단순한 숙소가 아니라 10 대에 가족의 생계를 지고 낯선 도시로 또는 낯선 나라(라오스에서)로 떠나온 청소년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과 기회를 갈 수있는 여건을 주면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자신의 삶을 다시 볼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정리 곧 우리의 사역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이 집을 운영하는가, 누구를 위해 열어두는가 하는 질문 앞에서 다시 서 봅니다.



블리스 카페 확장 이전을 앞두고...

최근 저희에게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블리스 카페의 확장이전 문제입니다. 현재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할 시점이 되었지만 동시에 재정적, 운영적 부담도 매우 큼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운영 인력, 그리고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까지... 하나하나가 교회사로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때로는 '이 길이 맞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BAM(Business as Mission)은 교회가 결코 재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구조 안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일은 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오픈할 수 없는 현지사정상 카페라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블리스카페에는 언어사역을 하시는 다른 선교사님들에게 좋은 사역장소로 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일상속에서 스며드는 복음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블리스카페의 확장이전에 대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광찌 가정교회들 방문

국경과 가깝게 깊숙이 있는 마을이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얼떨결(?)에 다녀왔습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웠다면 위험부담이 커서 절대로 가지 않았을 마을의 작은 가정교회들입니다. 그렇다보니 길도 험했고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면에서 열악한 환경속에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찾아가는 그 길 위에서 우리가 왜 이곳까지 와야하는가 라는 질문보다 '주님은 이미 이곳에 계신다'는 확신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 간 선물이라고는 너무 소박한 생필품과 식료품을 나누어주고 1년동안 열심히 교회에 나온 아이들에게 격려선물로 겨울용 자켓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눈빛을 초롱이며 자기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아이들을 보면서 복음은 때로 말보다 함께 와주는 발걸음, 머물러 주는 시간을 통해 전해 진다는 사실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 월에 미주 GP 경력사교사 허입 훈련과정을 마쳤습니다. 그 훈련동안 B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많은 질문들이 하나님앞에서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으며 해결받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늦게 부름받은 일꾼의 성실함을 주님께서 이쁘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에 감사만이 남는것 같아 그 또한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만으로는 꿈을 꿀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구도로 물질로 마음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이 계시기에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안에서 길 동무가 되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며 한걸음씩 나아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을 다해 감사합니다.

구도해 주십시오.

1. 루하마 집이 진정한 쉼과 회복의 공간으로 쓰임받는 양육의 집이 될 수 있도록..
2. 블리스 카페 확장 이전의 모든 과정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와 평안이 있도록...
3. 카페를 통해 만나는 청년들과 직원들의 마음에 소망이 심어지도록
4. 광찌 지역의 가정 교회들과 지속적인 만남과 돌봄의 길이 열리도록
5. 저희 부부가 늘 주님의 마음과 눈길을 쫓아 갈 수 있는 사교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6. 동역자 분들의 가정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떠나지 않으시길 저희가 구도합니다.

정진호/정명희 드림

